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곡성군이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8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협의회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실용적인 내용으로 진행됐

다.

먼저 5년 미만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귀농 닥터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귀농인들은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멘토링과 현장 작목 교

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주 1회 17일간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보조금이 100% 지원된다.

곡성군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생활기술 교육'에 대한 내용도 소개됐다. 농기계, 목공예, 화훼, 염색 등의 주제로 연간 4회의 교육이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체험비도 지원된다.

곡성군에 최근 5년 이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귀농체험 교육'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다. 이 교육은 선도농가의 견학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작물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참여자들은 옥수수, 블루베리, 살구, 멜론 등의 주제로 연간 4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에 따른 체험비용도 지원받는다.

다.

또한 각 지역장들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내의 이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기마다 권역별 간담회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협의회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들과의 융화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지난 23일에 옥방마켓에서 고추, 갯잎, 호박, 상추, 건나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했다. 오는 28일에는 떡과 음료를 준비하여 추석 귀성객 맞이 행사를 추진하며 귀농귀촌 상담도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양해영 기자



장성군, 택시요금 인상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택시 관계자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제안

장성군이 최근 지역 내 개인·법인 택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택시요금 인상안과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택시 관계자들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따라 기본요금 1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현재 장성군 택시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2019년 3500원에서 500원 인상한 이후 동결해 왔다. 거리요금은 134m 당 160원이며,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15km/h 이하 32초당 160원이다.

군 관계자는 "인근 시군의 요금 동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며 "다수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택시요금은 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된다.

장성=김수권 기자

구례군 "이제는 '구례시대', 주민과 함께 열어갈 것"

구례군은 9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차 지역발전혁신협의회(위원장 김영민)를 열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선포한 '법정부' 5대 전략 9대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되어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시행했던 수많은 혁신 정책은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지역 특성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평가함으로써 차별화되지 못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지방에 자치권과 재정권을 이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분야에 제한 없이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즉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도 산다'라는 국가경쟁 시스템의 대전환인 셈이다.

앞으로는 지역의 고유가치를 활용한 지자체별 차별화된 정책을 기획하여 상향식으로 제출하면 정부에서 심사 후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문화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담양군은 지난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문화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만의 특색을 담은 야간관광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광객들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오늘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화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화순군청 뒤편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화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화순군에서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인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 멜론, 새송이버섯, 불미나리, 인진쑥즙, 한과, 꿀, 홍삼 원액, 식혜 등 70여 가지 품목으로 19개 업체가 참여하여 소비자들에게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직거래장터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화순의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개선 약속 지켰다' 나주시, 저상형 청소차량 11대 운행 시작

차량 내 작업자 별도 탑승공간 마련 안전사고 예방·근골격계 부담 완화

윤병태 나주시장이 저상형 청소차량을 도입하면서 환경미화원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나주시는 25일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 11대(생활쓰레기 10대·음식물쓰레기 1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저상형 청소차량은 환경미화원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탑승 공간이 마련된 차량이다.

실내에는 에어컨, 히터, 외부 모니터가, 실외엔 안전 스위치, 빈리프트 등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치들이 설치돼 있다.

기존 차량은 운전석, 조수석 외 별도 탑승 공간이 없어 환경미화원들이 관행적으로 차량 뒷면에 설치된 발판에 발을 딛고 매달려 이동하면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왔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돼왔다.

차량 보조석에 탑승할 경우에도 높은 발판과 잦은 승하차로 인해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부담을 초래해왔다.



윤병태 시장은 취임 후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근로여건에 대한 고충을 수렴하고 저상형 차량 도입, 인력 대기실 신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작년 연말에는 영하 10도에 육박한 새벽 시간대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을 직접 찾아 환경미화원들과 작업에 참여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청소 차량 19대 중 11대를 저상형 차량으로 교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와 부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저상형 차량 도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깨끗한 나주를 위해 힘쓰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작업자들이 보다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